

치킨로드로 익산 구도심 활력

중앙동 치킨로드 3호점 '삼남극장' 개점... 치킨·문화 콘텐츠 만나 복합 외식문화 공간 탄생

익산시가 중앙동 구도심 일대에 조성 중인 '치킨로드' 사업이 본격화되어 올랐다. 그 세 번째 주자로, 익산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삼남극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삼남극장'은 지난 20일 극장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점을 알렸다. 지역 예술인과 공연단체가 참여해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과거 극장의 추억을 공유하며 색다른 경험을 즐겼다.

1977년 창인동(현 중앙동)에서 운영된 삼남극장은 한때 지역의 대표 공연장이었다. 하춘화, 고(故) 이주일 등 당대 최고의 인기가수와 코미디언이 무대에 올랐고, 시민들의 웃음과 감동이 오갔던 장소다.

익산시는 이 특별한 공간에서 영감을 얻어, 치킨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복합 외식문화 공간을 탄생시켰다. 삼남극장에서는 닭불고기와 전기 구이닭을 판매한다.

치킨로드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개이자, 지역의 스토리와 정서를 담아낸 문화 공간이다. 치킨을 매개로



다양한 컨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점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 가며, 중앙동 거리 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익산시는 앞서 중앙동 일대에 치킨로드 1호점 '연꽃담', 2호점 'BBQ 익산문화점'을 조성해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청년 창업을 결합한 거리 활성화 모델을 시도해왔다.

이번 삼남극장 개점에 이어 4~6호점까지 올 여름 개업을 앞두고 있는 '치킨로드'는 명실상부한 익산 구도심

재생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삼남극장은 단순한 치킨집이 아니라, 한 시절 시민들의 기억과 정서를 담은 공간이자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거리의 중심"이라며 "앞으로도 독창적인 외식 창업 아이템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치킨로드를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민제안 사업이 예산에 잘 반영 되도록’

군산시 시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지방재정·참여예산 교육 진행

시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도 군산시 시민참여 예산학교'가 지난 20일 개최됐다.

'시민참여예산학교'란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이날 교육은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송운정 강사가 진행했으며,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및 읍면동 지역위원회 위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의 구성 및 이해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이해와 운영 △시민참여예산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제안서 작성 요령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올해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사업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도 군산시 참여예산 규



모는 총 23억5,000만원으로 시정 분야 10억, 지역 분야 13억 5천만원(읍면동별 5,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7월 4일까지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면 군산시청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주민e참여, 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안전건설국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경건위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19일 군산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6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먼저, 김경구 의원은 이번 회의 개최 때 진행한 표준품질 관련 시정질문과 관련한 내용을 각 부서 전달이 필요하며 건설공사 표준품질과 시장적용단가를 비교해 저렴한 단가를 반영해서 예산 절감 노력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페이퍼컴퍼니 건설회사의 전수조사를 이행 수의계약 제한 등 조치를 주문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들의 경우 보상 절차가 미진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준공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했다.

박경대 의원은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군산시 중앙기철도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대광빌이 개정되면서 동서축(전주~새만금)에 대하여 정부에 제안하기 유리한 상황이므로 적극 대응을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나중대 의원은 진포중~한라비발디 일원 폐철도 부지 및 폐철도 철거 부지에 대하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조성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나운1동 상습결빙 구간 스노우멜팅사업의 공사 준공이 12월로 되어있음을 지적하며, 사업 실효성을 위해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신에 의원은 건축경관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경포천 산책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구 의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연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할 것과 기존 산책길의 정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적정한 시설물을 조성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 K-관광섬 매력... SNS 기반 홍보 박차

11월까지 매달 '고군산섬잇길 다달이 온라인 이벤트' 진행

군산시가 고군산섬잇길(말도·명도·방축도)을 중심으로 한 K-관광섬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군산섬잇길 다달이 온라인 이벤트'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K-관광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섬 관광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행사로 K-관광섬의 홍보를 계절, 행사 등과 엮어서 다양한 주제로 기획된다.

현재 6월에는 '날마다 찾아 떠나는 고군산섬잇길'을 주제로, 빙고판 속 숨은 섬 찾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7월은 여름철 인기 콘텐츠를 주로 한 '섬에서 뭐 할래?' △8월은 필름 카메라 행사와 연계한 '소문내기 이벤트' △9월 '섬 속 틀린 그림 찾기' 등 다양한 형식의 홍보 행사가 순차적으로 열리게 된다.

특히 군산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 기간과 연계한 인증샷 이벤트도 계획되어 있어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온라인 행사도 K-관광섬 인스타그램 채널(@gogunsan_seomgil)을 통해 운영된다.

이미 3~5월까지 세 차례 진행된 이

벤트에서는 총 4,5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열린 반응에 힘입어 시는 11월까지 매달 새로운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댓글 이벤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 팔로잉한 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작성하면 자동 응모된다. 참여자들에게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기프티콘 등)도 제공한다.

군산시는 이와 같은 사회관계망(SNS) 기반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K-관광섬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 마을전자상거래 순항... 안정적 유통 채널로 자리매김

꾸준한 판매 실적으로... 상반기 누적 매출액 20억 달성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안정적인 유통 환경을 바탕으로 지역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익산시는 마을전자상거래가 농산물 가격 변동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 속

에서도 꾸준한 판매 실적을 이어가며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 20억 원을 달성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설맞이 기획전, 봄·여름 맞이 행사 등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농

가의 소득 안정에 이바지하고,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 방문과 만족도 조사도 진행했다.

특히 양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4일부터는 양과 소비촉진 기획전으로 농가 소득 보전에 나섰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